

## 울산지역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및 학교생활 실태<sup>1)</sup>

이혜진(울산여성가족개발원 부연구위원)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학교생활 및 문화의 차이 또는 학습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학교생활의 부적응과 학업을 중단하기도 하는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있음.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편견없이 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한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울산지역 전체의 자원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울산여성가족 BRIEF 제6호(2018)**에서는, 2017년에 실시된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정 자녀 실태조사」의 결과 가운데 「교육 및 학교생활」 현황을 중심으로 울산지역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실태를 국내성장자녀와 중도입국자녀로 구분하여 파악하고자 함. 본 조사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 260명을 대상(국내성장자녀 228명, 중도입국자녀 32명)으로 진행되었음.

### 다문화 배경 자긍심

#### 자신의 다문화 배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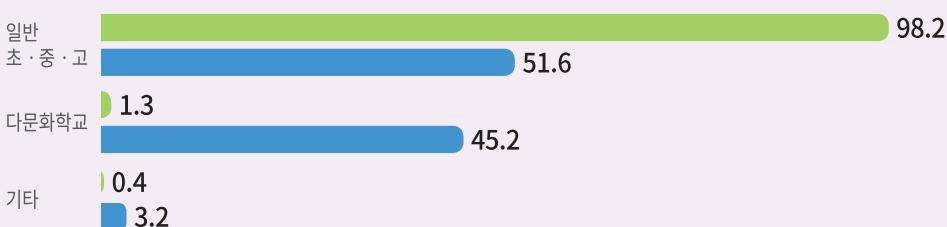
- 국내성장자녀의 경우 94.9% '보통 이상'
-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93.3% '보통 이상'



### 현재 통학 중인 학교, 학교 성적 및 예상 최종학력

- 국내성장자녀 98.2%, 중도입국자녀 51.6%가 일반초·중·고에 다니고 있음
- 학교성적 중(보통) 42.6%, 상(잘함+매우 잘함)이 45.4%로 전체 학생의 88.0%가 자신의 학교성적이 보통 이상이라고 여기고 있음
- 예상 최종학력은 대졸이상(대졸, 대학원이상)이 국내성장자녀 88.8%, 중도입국자녀 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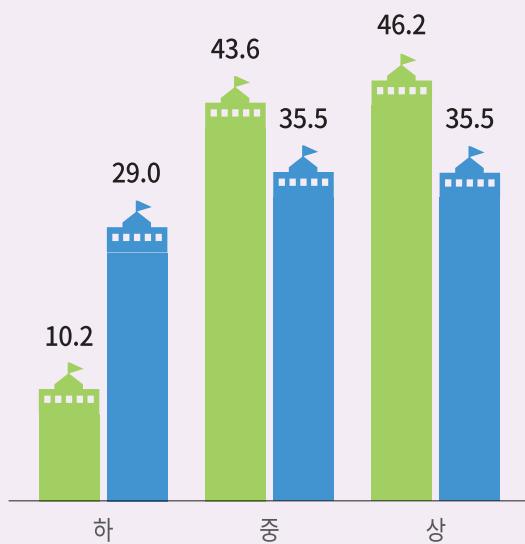
### 현재 통학 중인 학교



1) 본 브리프는 2017년 울산여성가족개발원 기본연구과제인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정 자녀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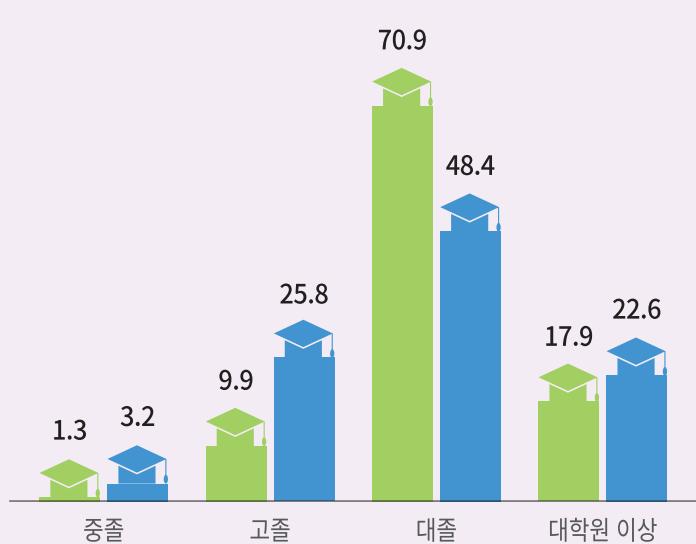
## 학교 성적

■ 국내성장자녀 ■ 중도입국자녀 (단위: %)



## 예상 최종 학력

■ 국내성장자녀 ■ 중도입국자녀 (단위: %)



##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 나라에서 공부할 계획 및 이유



부모님 나라에서 공부할 계획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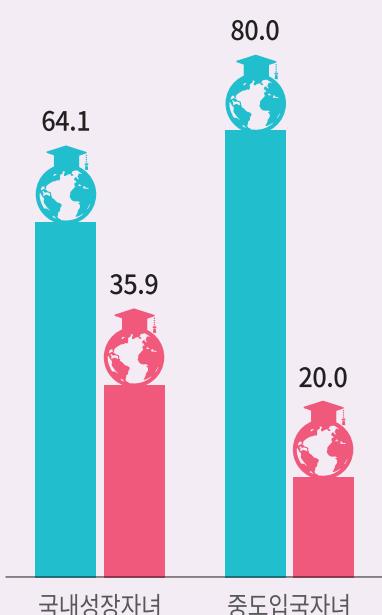
- 응답자 247명 가운데, '있음' 163명(66.0%), '없음' 84명(34.0%)

'외국출신 부모님 나라 말과 문화를 배우고 싶다'는 이유가 가장 높음

- 응답자 83명 가운데, 73.5%

## 부모님의 출신국에서 공부할 계획

■ 있음 ■ 없음 (단위: %)



## 부모님의 출신국에서 공부할 생각이 있는 이유

■ 중도입국자녀 ■ 국내성장자녀 (단위: %)





## 학교공부에서 가장 어려운 점

'학교공부는 별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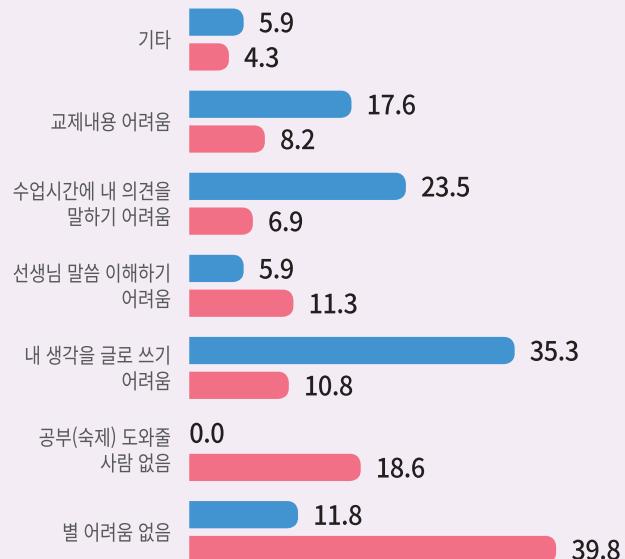
- '별 어려움 없음'이라는 응답자가 37.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공부(숙제) 도와줄 사람 없음'이 17.8%로 나타남.

### 학교공부에서 가장 어려운 점

■ 중도입국자녀 ■ 국내성장자녀 (단위: %)



■ 다문화학교 ■ 일반초중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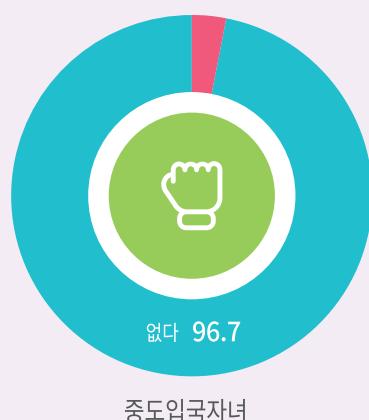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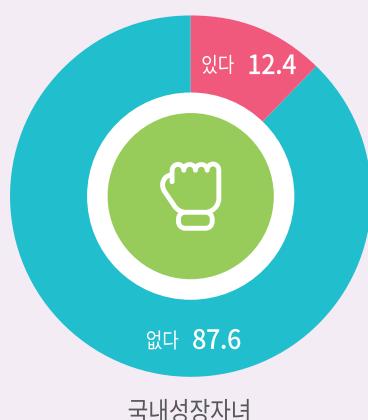
## 지난 1년간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없다'는 응답이 많았고 피해학생 중 대응방식은 '선생님께 말씀드린다'가 가장 많았음

- 전체 학생 중에는 피해경험 '있음' 11.3%, '없음' 88.7%로 나타남

### 학교폭력 피해 경험 유무

(단위: %)



## 학교폭력 피해 상황(다중응답)



## 학교폭력 대응 방식(다중응답)



## 시사점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다문화 배경이 자신의 미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인식을 읽어볼 수 있음.



-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 나라 문화-엄마나라, 아빠나라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언어, 문화 등)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이는 설문조사에서도 비교적 높은 다문화 배경 자긍심과, 외국출신 부모님 나라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이러한 프로그램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국내출생자녀와 중도입국자녀는 성장과정에서 상이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음. 또한 성장단계(주기별) 접근도 필요한데, 연령에 따라, 학교에 따라, 성장주기에 따른 학생들의 요구도를 파악하여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내성장자녀의 경우 '공부(숙제) 도와줄 사람 없음'을 학교공부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으나, 중도입국자녀의 경우는 '수업시간에 자신의 의견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초기 적응기에는 한국어 학습과 사회통합 차원에서 한국문화 적응 훈련이 중요함. 학령기의 경우 학교 진학을 대비하여 학력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중간단계(징검다리) 교육이 연계되어야 함. 이와 관련하여 운영 중인 레인보우스쿨은 공교육제도에 바로 편입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하여 한국어교육과 사회적응, 문화 및 진로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성격의 프로그램을 운영함. 이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의 역량이 강화됨. 울산지역의 경우, 현재 '다문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없으므로, 레인보우스쿨의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운영이 무엇보다도 필요함. 이를 위한 울산광역시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며, 지역사회에서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함께 논의해야 할 것임.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음.

학교 폭력 피해 상황 가운데, 특히 '말로 하는 협박이나 욕설'이 가장 많았음. 이에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폭력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며 평등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돋는 상호문화 이해 교육 등 형평성있는 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음.